

유아인 “보여준 적 없는 스타일, 신선할 겁니다”

이태석 신부 ‘울지마 톤즈’ 후속편 영화 ‘부활’ 다음 달 개봉

배우 유아인은 수많은 청춘을 연기해 왔다. 그 정점에는 칸 국제영화제에 초청받고, 뉴욕타임스 선정 ‘올해 최고의 배우’라는 수식어를 안겨 준 이창동 감독의 영화 ‘버닝’의 종수가 있다.

개봉을 앞둔 ‘#살아있다’의 준우는 종수와는 다른 의미로 이 시대 청춘의 표상이 될 만하다. 그가 연기해 온 청년 중에 ‘컴퓨터 앞에 앉아 마음 편히 게임을 하는 정도’의 지극히 평범한 요즘 애들이나 옆집 청년 같은 캐릭터는 지금껏 없었다.

개봉을 앞두고 만난 유아인은 “실제 생활보다 너무 무겁고 진지한 작품을 많이 해 왔다. 내 세대가 가진 발달하고 감각적인 모습을 대신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젊은 세대를 그려왔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래서 선택한 준우 역에 대해 유아인은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어쩌면 현실에 더 가까울지 모르는 면들을 풀어내 신선한 느낌을 줄 수 있겠다 싶었다”고 설명했다.

“버닝’의 종수가 이창동 감독님이 생각하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 대한 함축적인 언어라면, 준우는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스마트폰 쓰고, 육도 하고. 정말 옆집에 사는 청년 같은 평범함을 가진 친구죠.”

영화 ‘#살아있다’는 엄연히 장르물이다. 알 수 없는 이유로 등장한 좀비 떼가 한국의 주거 공간을 대표하는 아파트를 습격하고, 혼자 집에 남아있던 준우는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인다.

하지만 좀비 떼는 홀로 남겨진 한 인간의 감정을 깊이 따라 들어가 기 위한 수단처럼 쓰였다.

지극히 평범한 인물이 좀비 떼를 만나 홀로 간다는 지극히 평범하지 않은 상황을 맞닥뜨리고, 그 상황이 아니었다면 겪지 못했을 극한의 감정에 도달하는 진폭을 이질감 없이 설득력 있게 그려내는 게 유아인에게 이번 작품의 숙제였다.

좀비 떼 탓에 고립된 상황은 바이러스에 고립된 현 상황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만든 설정이지만, 모두가 자가격리와 거리 두기를 경험하고 있는 시기에 예상을 뛰어넘는 공감대를 얻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유아인도 “지금이나 아니면 (영화에서 얻는) 그 느낌이 지금처럼 강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연기력을 의심받지 않는 몇 안 되는 젊은 배우지만, 작품이나 연기와 상관없는 논란의 중심에 서곤 했던 그였다. 준우처럼 험령한 청바지에 흰색 면 티셔츠를 입고 나온 그에게서 예전의 날 선 예민함은 조금 흐릿해진 듯했다.

연예인들의 혼자 사는 일상을 보여주는 인기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출연분이 예고편을 타면서 관심이 높아졌다.

영화 ‘#살아있다’ 서 준우역 맡아 출연
“버닝’ 종수가 젊음의 함축적 언어였다면
준우는 옆집 청년 같은 평범한 친구”



유아인



그는 “시작과 끝이 있는 촬영만 하다가 쪽 나를 관찰하는 카메라 앞에 서고 그걸 다시 보는 게 색달랐다. 나도 몰랐던 나의 태도와 습관을 발견했다”며 “재미없고 답답한 시기를 지나 과도기를 거쳐 오니 내가 좀 편해졌고, 그걸 다른 분들도 느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도’가 어떤 시기의 매듭으로 느껴지기는 해요. 그런데 그 역시 지나고 나니 전체 퍼즐의 일부밖에 지나지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 지나고 보면 내 생각이 근시안적인 판단이었고,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용감하게 도전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버닝’은 그가 말한 과도기의 어디쯤 자리했다. “내가 겁연아도 아닌데 어느 순간 다 성취하고 목표를 상실한 느낌이 들었어요. 친구처럼 지내는 형, 누나들과의 대화도 힘들어지고. 그런 걸 추구하면서 살아야 하나? 삶의 동력을 잃은 것 같았어요. 지나고 나니 또 자연스럽고 당연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삶의 동력 자체에 대한 개념이 바뀐 것 같고, 여전히 과도기를 지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다양한 감각을 통해 매 순간에 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영화 속 짧은 탈색 머리는 애초 의도한 바가 아니었다. 앞서 촬영한 영화 때문에 삭발한 머리가 미처 자라지 않았고, 그 머리를 이어갈 수 없으니 오타쿠처럼 보이는, 눈을 가리는 앞머리가 있는 가발을 쓰고 촬영을 시작했다.

가발을 쓰게 됐으니 10년 만에 탈색을 감행했는데 촬영 중 잠시 가발을 벗었을 때 모니터를 본 제작사 대표가 짧은 탈색 머리를 밀어붙였다.

유아인은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스타일이라 신선할 수는 있겠지만 움츠림이 많으니 (눈을 가린 머리가) 부담스럽기도 했다”며 “영화가 잘 되면 (가발 쓴 모습을) 인스타에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남수단의 슈바 이저’고(故) 이태석 신부의 삶을 다룬 ‘울지마 톤즈’의 후속편이 관객을 찾는다.

이태석재단은 ‘울지마 톤즈’의 후속 영화 ‘부활’이 다음 달 개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0년에 개봉한 ‘울지마 톤즈’는 48세로 세상을 떠난 이태석 신부가 생전 남수단 톤즈에서 선교사, 의사 등으로 활동한 모습을 담았다. 이태석 신부는 2008년 10월 한국 방문길에 받은 건강검진에서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투병하다 2010년 1월 14일 48세에 선종했다.

‘부활’은 ‘울지마 톤즈’를 연출했던 구수환 감독이 연출을 맡았으며 이태석 신부가 선종하고 10년 후, 그의 사람으로 자란 제자들을 찾아 나선 내용을 담았다. 기자, 의사, 약사, 공무원 등 직업은 다양하지만 모두 생전의 이태석 신부처럼 살아가고 있다. 이 신부가 남긴 사랑과 헌신의 삶이 제자들을 통해 희망으로 살아난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살레시오회 소속 수도 사제이자 인재대 의대를 졸업한 이태석 신부는 1991년 군 복무를 마친 뒤 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에 입회했다가, 이듬해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에 입학해 성직자의 길을 걸었다. 2001년 아프리카 수단 남부 톤즈마을 선교사로 자원해 가난한 주민들을 위해 헌신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상징갈던 홍탁집의 배신

썹썹한 ‘골목식당’ 7.3%

최후의 보루 같던 홍탁집마저 변했다. 백종원도 시청자도 분노했다.

18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 10분 방송한 SBS TV 예능 ‘백종원의 골목식당’ 시청률은 5.8%~7.3%를 기록했다.

전날 방송에서는 서산 해미읍성 골목 긴급 점검 이야기가 공개됐고, 위생관리 베스트&위스트 가계가 소개됐다. 뛰어난 손맛과 친절한 손님 응대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극찬을 받았던 돼지개집부터 백 대표의 믿음은 송두리째 깨버렸다.

이러 위생상태 불량 가게로 포방터시장 홍탁집이 등장해 더 큰 충격을 안겼다.

백종원 솔루션으로 개교전선한 가게 1위로 꼽혔던 홍탁집은 위생관리업체에서도 손 뺐을 정도로 위생이 엉망이었다. 특히 홍탁집 아들은 백 대표의 마지막 점검이 끝나자마자 돌변한듯한 정황을 보여 실망감을 더 키웠다.

방송 이후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안기고, 11월 결혼까지 앞둔 홍탁집 아들이 변한 데 백 대표는 물론 시청자들도 썹썹함을 감추지 못했다.

/연합뉴스

‘센 언니들’ 물려온다...선미·화사·블랙핑크, 이달말 컴백

킬크리시 매력으로 두꺼운 팬층을 지닌 여성 가수들이 이달말 컴백하면서 올여름 가요계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연이은 히트곡으로 손에 꼽히는 여성 솔로 가수로서의 입지를 다진 선미는 오는 29일 10개월 만에 신곡으로 돌아온다.

선미는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보랏빛 밤’(pporappippam) 발매 예고 사진을 게재하며 컴백을 알렸다. 어깨가 드러난 호피 무늬 드레스를 입은 선미가 카메라를 내려다보는 사진으로, 선미가 그동안 보여왔던 강렬하면서도 자유로운 매력이 드러난다.

이번 신곡은 발매 당시 음원 차트 1위를 휩쓸었던 ‘사이렌’(Siren)을 비롯해 직전 작품 ‘날라리’(LALALAY)를 만든 프란츠(FRANTS)가 선미와 함께 작곡했다.

‘주인공’, ‘가시나’, ‘누아르’ 등의 가사를 직접 써온 선미는 이번

에도 작사에 참여했다.

신형 여성 솔로 가수로 떠오른 화사도 29일에 첫 번째 미니앨범 ‘마리아’를 발매한다.

킬그룹 마마무 멤버인 화사는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당당함으로 여성 팬을 끌고 다닌다.

지난해 발표해 오랫동안 음원 차트 1위를 지킨 첫 번째 솔로 싱글 ‘명칭이’에서도 자신만을 바라보고 목메는 남자를 명칭이라 부르며 팍 팍만 면모를 드러냈다.

화사는 최근 공개한 ‘마리아’ 표지 사진에서 뺨을 목에 감은 모습으로 등장해 신곡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센 언니’들이 한 팀으로 있는 킬그룹 블랙핑크는 지난달 컴백 소식을 일찌감치 알렸다.

이들은 전날 컴백 포스터를 공개하며 오는 26일 ‘하우 유 라이크



선미 ‘보랏빛’



화사 미니 1집 ‘마리아’

댓’(How You Like That)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 ‘뚜두뚜두’ 등에서 또래 여성들의 공감을 사는 솔직하고 과감한 가사와 강렬한 힙합 사운드로 사랑 받았다.

최근 팝스타 레이디 가가와 낸 협업곡이 빌보드 등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컴백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연합뉴스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국수나무 광주용봉점 (비엔날레) 북구 용봉동 1091-4(M-타워)KB국민은행건물 모든메뉴 포장및배달가능 직접전화및배달앱주문(배달의민족, 오키요) ☎ 062)526-5475, 010-8621-5959	고 전 방 동구 궁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	퀵 타로카드 지하철 금남로5가역4번출구앞(신한은행옆) 궁합, 사주, 신수, 취직, 택일, 작명, 운수판단, 인생상담 타로마스터 ☎ 010-3640-6429	신신 예술의 집 동구 궁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	만 福 堂 동구 계봉로 184번길 5-9 (대인시장내) 골동품, 석물, 도자기, 민속품, 고가구 미술품 매도·매입합니다. 찾는 물품을 찾아드립니다. ☎ 062)959-0680, 010-4602-0680	석 당 화 랭 동구 궁동 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유타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장 어 수 산 북구 서암대로 88(신안다리아) 무항생제 경어사용 포장배달·전국택배배송·선물포장해드립니다. 신용부위 ☎ 062)412-1961, 010-5828-1961	미가한우명가 나주시 풍물시장2길 54(영산포스터미날렛편) 생고기, 생고기비빔밥, 떡갈비정식 ☎ 061)333-0505, 010-4390-3366	무크 광주세정점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2층 258호 화사한복 신상품 대량입고 남·여 20~40%세일 (일부품목제외) ☎ 062)370-9258	한성꽃화원 나주시 나주로71(송월동 LG화화점) 근조·축하화환, 동·서양관, 관엽전국배달 ☎ 061)334-3200, 010-3623-6921	자연모기발안병원헤어샵 동구 롯데백화점점, 금남전자상가 5층 자연모 넘어 개발 맞춤 전문! 중형기발을자연모신상품으로중모 리폼·대여가능 ☎ 062)227-8084, 010-3608-2943	초 대 화 랭 동구 궁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남 문 냉 동 나주시 이창동 풍물시장2길 5-4 저온저장고제작수리, 영업용 냉장·냉동수리 에어컨 전문설치 ☎ 061)333-2779, 010-3610-2779	우리 뷔 페 남구 지석동 73-5번지 (포춘사와 대촌동사무소 중간지점) 정성과 새로운 맛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회사·단체장부 환영) ☎ 062)381-0066, 010-3085-0140	개성전통한방삼계탕 서구 치평동 케이원하이빌 1층 삼계탕전문점 포장가능합니다. ☎ 062)383-3454, 010-2106-0424	천상일월태주명 나주시 남외동33-3번지 남고문편 종합, 사주, 신수, 택일 전문점 ☎ 010-2617-3635	대성각 중화반점 동구 무등로306-6 (구시청뒤 도로변) 각종 전통 중화요리 전문점 전화주문시 신속배달 ☎ 062)430-5342	박 당 화 랭 동구 궁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및감정 대표 박한승 ☎ 062)222-6866